

제 6 권 아내의 존중

제 5 권 죄 죽이기

1.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출처: Earth's Morning

저자: 호라티우스 보나르(1808-1889):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찬송 작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생

역자: 이중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1-23).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채택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이 독특한 과정은 아담 앞에 선 그 배우자의 근원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을 암시한다.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그는 고통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의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그 상처를 즉시 치료하셨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동시에 그녀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려주셨다. 이에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을 인식한다. 그는 빈자리가 채워짐을 느끼고 자신과 그녀와의 동일성을 인지한다. 그는 이 사실을 표현하는 이름을 그녀에게 준다. 그녀의 이름은 여자(Isha)가 될 것인데 이것은 남자(Ish) 자신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¹⁾ 그 후, 그 둘의 동일성과 이 연합을 중요하게 만드는 남자의 역할에 관한 역사가의 언급이 뒤따른다.

결혼한 부부간의 관계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보다 더 가깝다. 모든 다른 관계들이 아무리 깊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부부관계에는 못 미친다. 24절의 말씀은 분명 아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담의 말에 대한 모세의 언급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모세의 이 언급을 확장하셨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막10:6-9). ‘그러므로’, 몇 가지를 더 언급한 후에 이 구절을 지나가겠다.

1) 아담의 잠에 관해: 아담의 잠은 매우 깊은 잠이었다. 그 잠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잠이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잠이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경우에서 같은 사건을 본다(창15:12; 단8:18, 10:9)²⁾.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들을 전달하고자 하실 때,

1) *Isha...Ish* = 여자(woman) 또는 아내(wife), 남자(man) 또는 남편(husband)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이다.

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창15:12);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단8:18);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단10:9).

하나님으로부터 온 깊은 잠이 이 둘에게 떨어졌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신데 비해,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 잠들게 하셨다. 두 경우에서 모두 그들은 우리가 잠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외부의 일들에 대해 의식할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들의 영혼을, 아담의 경우에는 그의 몸을 장악하셨다. 이는 아담이 죽음에 가장 근접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아담이 잠들어야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정해진 배우자를 꺼내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에게도 역시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된 신부를 꺼내실 수 있다. 이처럼, 아담의 잠에는 장차 있을 일을 예표하는 원가가 있다.

2)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담이 잠에 빠지도록 하신 후 친히 그에게서 갈빗대를 꺼내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위대한 계획자이며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위대한 행위자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신다. 우리가 ‘제 2 원인’을 말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신비로운 도구이거나 수단을 말한다. 하나님은 매일 밤 우리를 잠들도록 누이신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그분은 우리의 밤과 낮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재료로 여자를 만드신 데는 의도가 있으셨다. 이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남자가 그녀의 머리가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남자는 흙으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남자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 직접 나왔고, 여자는 간접적으로 남자를 통해 나왔다.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딤후2:13). 그러므로 그는 이처럼 말한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딤후2:12). 그는 단계적으로 강조하여 언급한다. “(1)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2)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3)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고전11:3). 게다가 그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혹은 자랑)”이라고 덧붙인다(고전11:7).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고전11:8-9). 이것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이며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위치와 지위이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든 못하든, 이러한 질서에 대한 근거는 ‘상징적’ 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이 법을 바꾼다면, 우리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법을 뒤집는다면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복잡해서 전체를 바꾸지 않고는 가장 작은 변화의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별 하나가 없어지고, 행성 하나가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늘의 조화를 혼란케 할 것이며 우주의 붕괴와 함께 창공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법이라도 놓치거나 무시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행복한 질서가 훼손될 것이다.

어떤 시대 혹은 어떤 나라에서, 남자는 여자를 노예로 여기며 억누른다. 또 한편으로, 남자는 여자를 이상화하고 그녀를 그들의 여신으로 여기며 노래한다. 두 경우 모두 다 인류에 사회적 해를 입히는데, 후자의 경우도 전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맹신적인 감상주의에 의해 영적이며 사회적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으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독한지 그 누가 말

할 수 있는가. 이 감상주의는 우리의 문학을 만들어내고 젊은이들 사이에 독감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단지 “건강한 젊은이들을 희생시킬”³⁾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니, 오히려 여성의 아름다움을 숭상함과 여성의 사랑을 이상화함으로 미묘한 불경건과 피조 숭배의 교리를 만연하게 한다.

3)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카락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의 주인도 아니고 그의 노예도 아니며 그의 친구임을 나타낸다. 오직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그녀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이 예외이다. 여자는 남자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나왔다. 여자는 남자의 지적 능력을 공유하기보다는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생각하는 머리카락이 아닌 팔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남자의 가장 작은 것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나왔다. 따뜻한 피가 흐르고, 심장이 고동치며 맥박이 뛰는 곳,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는 그곳에서 여자가 나왔다. 모든 시대에, 사랑이 생겨나는 부분, 기쁨과 슬픔이 흘러 교류하며, 매시간 두려움에 잠기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남자의 심장 부분에서 여자가 나왔다. 멧비둘기 날개의 향기는 그 새가 어떤 향의 숲으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처럼 여자의 부드러운 본성도 그녀가 다정함과 온화함의 장소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준다.

영원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나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아들의 품으로부터 교회가 나와 아들의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자 꼭 닮은 아내(reflection)가 되었다. 이처럼 남자의 옆구리, 남자의 품에서 여자가 나왔고, 그녀는 동시에 남자의 다정한 사랑이 구현되는 대상이자 남자의 사랑이 배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장소’인 대제사장의 ‘가슴(흉패)’의 빛나는 보석 안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머물러 있던 것처럼, 남자의 가슴 위에 여자가 머물러있다. 그리고 이처럼, 장차 교회는 이 땅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안에서 영원한 신랑의 가슴 위에 머물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왼팔로 교회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교회를 안을 것이다(아2:6)⁴⁾. 그 때는 주님께서 영원히 교회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실 것이다(아8:6)⁵⁾.

4)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든 것에 대해:

살이 심장 위로 침하하는 것을 막고, 심장이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보호역할을 하는 늑골들 중 하나가 완전히 적출되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남자의 몸에서 뼈와 살이 함께 취하여졌는데 더욱 부드러운 살의 부분과 더욱 견고한 뼈의 부분이 취해졌다. 이는 여자가 몇 가지 부분에서는 다를지라도 진정 남자의 근원으로부터 나왔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여자는 흙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어짐으로 남자가 그녀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여자를 완전히 그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남자는 여자를 단지 그와 ‘유사한’ 존재가 아닌, 그와 ‘하나’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그녀의 부재는 남자 자신의 일부가 없는 것이고 그녀가 없는 남자는 미완성이며 불완전한 것이다...이처럼 남자라는 육체의 성전에서 나온 여자는(사도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부르도록 가르친다, 고전6:19 참조)⁶⁾ 친숙하지만 신비로

3)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 중 오베론의 대사.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 희극이다. 역자주.

4)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아2:6).

5)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아8:6).

운 단어인 ‘마음’ 과 관련된 모든 지고하고(sacred) 다정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5) 여자를 만드신 것에 관하여: 그 표현은 매우 특이하다. 그것은 이미 앞서 사용된 ‘창조하시다’ 나 ‘지으시다’ 라는 용어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만드시다’ 이다. 이 단어는 매우 일반적인 단어이며 400번 이상 발견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특이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도시, 집, 가족, 사원, 보좌, 제단 등을 만들 때 연관되는 단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를 형성(탄생/창조)하시며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확실히 어떤 의도가 있다. 남자의 경우, 그는 ‘지음’ 받았다. 여자의 경우 그녀는 ‘만들어’ 졌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는 그야말로 일단 ‘지음 받았다(was made)’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는 숨을 거두시는 주님의 옆구리의 상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건축되는 것(was builded)’ 으로 표현한다.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21-22).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edify) 하심이라” (엡4:12)고 말하는데 여기서 세우는 것은 곧 ‘건축(building)’ 하는 것과 같다.

‘만들다(building)’ 라는 단어는 하와의 형성(탄생)에도 적용되었다.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에 하와의 형성과정(탄생과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다. 시간이 흘러, 두 번째 하와인 교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및 배우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창에 찢린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나온 둘째 하와 역시 첫째 하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옛 창조보다 새로운 창조에 더 많은 값과 고통을 치르셨다. 구속은 단순히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대체되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육신의 것은 영의 것으로,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택된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찢린 옆구리로부터 나와 놀라운 공창들을 만드셨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교회는 저 옛날 성전이 도끼나 망치 소리 없이 지어졌던 것처럼 건축된다. 교회는 즉시 어린양께서 특별히 거하시며 가장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할 도시로 건설된다. 이 동반자가 없이는 이 좋은 우주도 그리스도께는 불완전할 것이다. 새롭게 되어 영광스럽게 된 세상에 계시더라도 홀로 있다면 그리스도께는 좋지 않을 것이다(창2:18).⁷⁾ 만일 아버지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를 그 아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들이 그 돕는 배필을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들며 그로부터 교회가 나오게 될 것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 는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적에서 나타난 이 돕는 배필의 아름다움 모습은 이미 아들의 마음을 빼앗았다(아4:9).⁸⁾ 교회의 존재만이 더 나은 낙원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은 영원토록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었다(요

6)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7)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8)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꿩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아4:9).

15:9; 17:23-26).⁹⁾

6) **(빠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신 것에 관하여:** 아담은 어떤 면에서도 피해자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혜자가 되었다. 모든 결핍은 회복되었고, 모든 손실은 충족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속성과 그녀가 창조된 목적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이 또한 장차 있을 일의 모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실 때 남자에게 고통을 남기지 않으셨다. 아담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 허벅다리를 절뚝거리며 주의 교훈을 배워야 했다(창 32:31). 그러나 아담은 그의 돕는 배필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주의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그녀가 생겨나는데 있어서 아담은 신비한 잠에 빠져든 것 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잠,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치르지 않았다. 그 소중한 선물의 유일한 대가는 단지 잠이었다! 어떤 고통도, 손실도 혹은 약함도 없이 그는 여전히 창조주의 손으로 만들어졌던 그 때의 아담 그대로였다.

둘째 아담 역시 우리를 위해 어떤 손해도 입지 않으셨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담의 것보다 더 어둡고 슬프고 더 고통스러운 잠에 빠지셔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다 끝났다! 주님은 낮은 상태에서의 약함과 슬픔, 어두움이 더 이상 없으시다. 주님은 한때 비천한 예수였기에 지금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는 실로 천국에 계시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계 5:6)처럼 보이신다. 주님은 아마 십자가에서의 상처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다른 모든 치욕들은 지워졌다. 주님은 오직 그의 신부를 얻으셨고, 어떤 것도 잃지 않으셨다. 아니, 그는 오히려 더 많이 얻으셨다. 이 땅에서의 그의 연약함, 슬픔, 수치는 주님께 새로운 힘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5:12).

7) **여자를 남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에 관하여:**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창 2:22).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의 방에서 서서 신부의 아버지인 것처럼,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오신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딸인 그녀를 그녀의 장래 신랑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함께 모으고 성혼의 축복을 선언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 처음 봤지만 낯설지 않다. 아담의 일부이며, 그의 존재를 채워주는 그녀는 아담의 앞으로 이끌려왔다.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그에게 결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 하와는 아가서에서 자신에 대해 노래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아1: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아2:4). 또한 성경은 그녀에 대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시45:14)라고 기록하고 또한 그녀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계21:2)고 기록한다. 그녀의 독특한 특징들 중 하나는,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15:9);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3-26).

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 그녀는 공중으로 들려져 아들을 만나고 아버지에 의해 그의 앞으로 이끌려올 것이다. 거기에서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이고, 신랑의 오랜 약혼자인 그녀는 ‘정결한 처녀’ 로써 아들 앞에 나아올 것이다(고후11:2).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크게 외치며 노래할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19:7-8).

8) 아담이 하와를 인식함에 관하여: 계시에 의해서든 스스로 인식하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담은 그 여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녀를 남자의 한 부분으로 보고 여자(woman)라고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녀를 소개하였을 때 아담의 반응이었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과 하나라는 것을 인지했고, 자기 자신처럼 그녀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오시는 것을 동의하시고 여자는 오는 것을 동의하며 이제 아담은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는 것을 본다. 따라서 이 결혼은 완벽한 전원 합의에 의해 완성된다.

이는 둘째 아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그의 신부를 받으시고 소유하신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에게 속한 부분이며 또한 자신과 하나라고 여기고 맞이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2:11). 또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5:30)고 쓰여 있다.¹⁰⁾ 주님은 자신과 그의 신부 사이의 신비로운 일치됨을 인식하시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시며 그녀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아1:8)요 “모든 영화를 누린다”(시45:13)고 표현하신다. 그녀는 기쁨으로 신랑에 대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시45:2)라고 화답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에 대해 감탄하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아4:7). 이에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아5:10-11; 15-16)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신랑과 신랑의 사랑을 소유한다는 행복한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만족한 영혼의 깊은 감정을 맘껏 노래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아2:16-17).

10) 원문에서 인용된 킹 제임스 번역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Ephesians 5:30, KJV), 역자주.

2. 아내의 의무

출처: An Explanation of the Assembly' s Short Catechism

저자: 토마스 빈센트(1634-1678): 영국 비국교도 청교도 목사, 영국 허트포드에서 출생

역자: 백금옥

질문 7: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남편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 하되 술취하지 아니하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딤후2:4).
- 2) 침소와 자산, 그리고 남편과 관련한 그 어떤 비밀에 대해서도 신뢰와 정절을 지켜야 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 (히13:4).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딤후3:11).
- 3) 남편을 존경하고 그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 하라” (엡5:33).
- 4)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모든 일에 대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할지니라” (엡5:22,24).
- 5) 남편의 성향과 취향에 자신 및 모든 것을 맞추어 그를 기쁘게 하려고 배려해야 한다. “시집 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고전7:34).
- 6)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진 남편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2:18),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잠31:27).
- 7) 남편의 방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 어쩌면 이로써 그의 영혼이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 남편이 악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아내는 온순하며 지혜롭게, 또 친절하며 애정 어린 권유로, 순결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벧전3:1~2).

3. 경건한 존중

출처: Life in the Spirit in Marriage, Home, and Work: An Exposition of Ephesians
저자: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강해 설교 목사이며 저자. 영국 웨일즈 카르디프 출생
역자: 안선형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 5:33)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주목할 만한 단어를 사용했다. 흥정역 성경은 ‘존경’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두려움’으로 “아내도 남편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다. 하지만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 알려주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요일4:18). 하지만 요한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 말한다. 경외하는 마음은 실제로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되, 존경하며 순종하라.” 바울은 아내들에게 다시 한 번 권면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5:22-24). 바울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존중하되, 존경하며 순종하라”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 베드로는 나름의 방식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특별한 교훈의 본보기와 모범에 관해 말씀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벧전3:1). 이는 ‘존중’과 같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벧전3:1). 여기서 베드로는 약간 다른 주제를 다루는데 필자는 곧 이에 대해 언급하겠다. 베드로는 아내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간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벧전3:5). 그리고 다음 구절로 이어진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벧전3:6).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즉, 아내는 결혼을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이며, 부부라는 새로운 단위의 으뜸으로 여겨야 한다. 부부는 둘이 하나이지만, 몸에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 단위의 머리는 하나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며, 이 관계를 깨달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이전에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시편 45편 10절 말씀의 권고와 같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는 교회에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교회가 하늘의 신랑과 합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는 또한 결혼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도 해당한다. 아내는 아버지의 집과 식구들을 잊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이치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남편이 시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처럼, 아내도 친정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세기 2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과 관련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말씀이 없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여자는 항상 존중을 표하는 위치에 있다. 남자도 결혼하기 전까지 존중하는 처지지만 결혼하면서 머리가 된다. 여자는 부모를 존중하지만, 결혼하면서 남편을 존중하게 된다. 여자는 항상 존중하는 처지이며, 머리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남자는 어렸을 때와 아들일 때는 부모를 존중하지만, 머리가 되면서 아내로부터 존중받는다. 사람들이 이러한 교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 이외의 다른 이를 더 귀하게 여길 때 결혼생활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새 가정을 무너뜨린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단위라는 것과 그 새로운 단위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경건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새 단위에 적응해야 한다. 아내는 더 이상 친정 부모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분들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한다. 물론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가 끊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단위로 인한 아내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에 맞게 행하여야 한다. 종종 이 부분에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어긋날 때가 많다. 결혼하면 남편이 처가에 데릴사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시댁의 민며느리로 들어가는 예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잘못된 것이며,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 양가 부모님들과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결코 존중과 순종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한 부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고, 어떤 경우여라도 이 태도를 고수해야 행복한 결혼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본질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만약 양가 부모 어느 쪽이 간섭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는 죄를 짓는 동시에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도 아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5:33하). 이는 아내가 가장 적응해야 할 최고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과 겨루거나 싸워서도 안 된다.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결혼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베드로가 특이하게 기록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벧전3:6상). 남편을 주로 바꾸어 부르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는가? 18세기 사람들에게 관한 책을 읽어 보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존경하는 의미로 “미스터” (Mister)를 습관적으로 이름 앞에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 많이 갔다. 이런 일에는 올바른 균형이 있기 마련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 라고 부름으로써 성경의 원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벧전3:6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라’이며,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비그리스도인 여인들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롭고 희귀한 예외적인 일이라서 분명히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당연한 듯 늘 따

분해하고 대드는 이방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과 존중을 다하는 아내를 보게 되면, 그들 중 다수가 그 아내를 공격하며 박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이와 같다.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남편 존중하기를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겁먹지도 말고,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모욕하더라도 조금도 신경 쓰지 말라.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 말라. 설사 남편이 아내의 존중을 오해하고 악용하더라도 계속 존중하라.” 베드로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벧전 3:6)고 말한다. 참된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이 시대의 이방 세계 역시 같은 말을 한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여성의 권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두라. 그들이 아는 게 무엇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고 성령도 없다. 당신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기억하라.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품행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고이다. 우리는 성경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는 놀라운 균형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바울은 모든 것을 에베소서 5장 33절로 요약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가 이 말씀처럼 행하는 한 ‘권리’ 라든가 ‘자기 입장’, ‘자기 지위’ 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머리가 된 남편이 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절대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아내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이상에 순복해야 한다. 아내는 결코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권리를 박탈 당할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부부가 각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완벽하고 온전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방법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다.

이 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 간의 불화를 염려한다. 또한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을 심히 우려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함부로 말하고 서로를 비난한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결혼생활이 자기들이 비난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기독교와 세속주의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세속주의는 항상 일반론을 전개하면서 개인을 망각한다. 기독교는 대중과 국가는 결국 개인의 모임일 뿐이라고 인식한다. 필자는 개인의 삶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하는 말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여러 분야에서 국민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에서는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슨 권리로 나라 간 조약의 신성함을 언급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개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이치와 같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영국은 가장 번영을 누렸다. 오직 그 때만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 가까웠던 때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원리를 따라 그들의 품행에 적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복음 전파와 성경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덕이 군축회담과 관련하여,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대해 뭔가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저는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말만 무성한 이와 같은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사람들은 행진 운동을 조직하고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사소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헛된 일이다. 그러나 한 나라 혹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면 비로소 오직 그때부터 국내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품행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정확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럼 몇 가지 원칙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본다. 첫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중요한 말씀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결혼의 본질, 특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이해한다면 결론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서로 반대되는 면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지시한다.

둘째, 결혼생활이 깨지는 이유는 단 하나, 간음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한 몸’이 무너질 때 결혼 관계는 끝나게 된다. 간음을 제외하면 이혼할만한 이유는 없다. ‘한 몸’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간음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면, 서로 간에 관계에 있어서 염려할 일은 전혀 없다. 부부 사이에 형성된 인간관계, 애정, 사랑은 주님께 향한 공통된 사랑에 의해 다져진다.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면, 주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각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식한다면, 그리고 이런 생각 위에 논리가 서 있고 이끌려 산다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들의 부분 관계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다. 남편의 머리 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돌아가셨다. 주님은 교회를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시며 기도로 중보 하신다. 주님은 교회가 영화롭게 되며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다. 즉,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와의 관계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결혼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2:5).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5:33).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5:26).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하). 삶의 모든 관계가 승화되고 변화되었으며, 높이 오르고 숭고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범과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4. 존경심을 나타내는 삶

출처: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The Works of Ezekiel Hopkins*.

저자: 에제키엘 홉킨스(1634-1690): 영국 목사이며 저자. 영국 샌드포드 출생

역자: 황모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한 번 생각해 보려한다.

1) 복종과 순종

이것은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전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요구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2).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5:24). 단지 사도들이 권위로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당부하기 때문이다.

[1]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전 11:3, 8).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다. 그녀는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이 존재하도록 먼저 재료를 제공한 남자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고전11:9). 여자는 남자의 필요와 편리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그녀의 창조 목적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그러므로, 남자를 위하여 존재함을 입은 여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사도들이 이 명령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 창조의 우선순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딤후 2:12-13).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므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피조물이기는 하나, 위엄에 있어 먼저 창조된 남자가 먼저 되는 것이 마땅하다.

[4] 여자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적절하고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여자의 죄에 대한 형벌임을 알 수 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6). 만약 죄가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남자를 향한 여자의 복종이 없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앞서 제시된 이유들이 이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그러나 이제 여자의 복종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그녀에게 쉽고 기쁨이 되었던 것에 반하여 지금은 이것이 힘들고 통탄할 만한 일이 되었다 - 남자는 죄로 인하여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쉽게 화를 내

는 존재가 되었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여자는 그 일에 대하여 더 무력해졌고 또한 그렇게 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덜하여졌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본인 스스로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든 일을 부과하심으로, 공정하고 의롭게 그녀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에 더하여 사도들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자.

[5] 남자에게 주어진 직함이 아내에 대하여 우월성¹¹⁾과 권위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주 (lord)와 같은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벧전 3:6). 남자는 이와 비슷하게 아내의 머리오 아내자라 불린다(고전 11:3; 잠 2:17)

[6]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아내는 교회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특별한 우월성과 복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내의 복종이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복종은 자신들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모범을 보인 거룩한 여자들을 통해 권면되고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벧전 3:5).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아내들에게 이같이 가르치라고 부탁한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딤후 2:5).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와 동일한 의무를 직접 가르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 3:18).

이러한 명령들은 매우 빈번하고 나타나고, 그 어떤 의무 중에서도 아내의 복종만큼 성경이 많은 사례와 열심으로 이렇게 분명한 이유와 강력한 동기로 권고하는 것이 드물다. 이 의무는 흔히 “너희는 복종하라”고 표현되고 실천에 있어서는 “주께 하듯...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그 안에 복종에 대한 세 가지, 즉 동기, 방향성, 그리고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 **순종에 대한 동기:** 순종은 주께 하는 것이다. 고집스럽고 화를 잘 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들은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걱려가 없다. 물론 양심적인 아내에게는 이것이 충분한 걱려일 것이다. 주께서는 그녀의 순종을 받으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그녀에게 하늘의 남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순종을 마치 주님께 행한 것처럼 여기실 것이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결혼을 생각할 때, 바울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의무실행이 어느 정도 그 영적인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고 여긴다.

- **의무실행에 대한 방향성:** 순종은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11) 우월성 (superiority) -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그리고 그 후의 신학자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하여 우월함(superior)과 열등함(inferior)을 표현했을 때는 그들이 서로 다른 지위(rank)에 관하여 말할 때 (예: 군대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말할 때) 사용한 것이지, 인간 본성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서 여자에게 명령하실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대한 의무와 순종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때로는 성질이 고약하고 이기적인 남편에 대해서는 순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매우 타당해 보인다. 이때 자신들의 의지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아내들에게는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또는 폭군의 자세로 순종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비굴하게 굴복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이 남편에 대한 것만이 아닌 주를 향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아내는 그녀의 남편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비록 그녀의 성질 고약한 남편을 위한 순종의 필요성을 못 느낄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의무 실행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 이 구절은 아내의 순종의 범위를 알려준다. 아내는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되, 주 안에서 그리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즉, 그녀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된다.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아내는 반드시 그녀의 남편의 뜻과 명령에 힘이 다하는데까지 최대한 순종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을 명령한다면, 그는 그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꺼려지거나 혹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그녀에게 핑계 거리가 되거나 그녀에게 부여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의무에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거나 실행하기에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도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그녀의 기질과 성향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의 법과 본성에 의해 그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녀의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어진 일을 행하여야 한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 생각에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내가 그녀의 남편이 내린 명령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그 명령을 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가 아내에게 모든 것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모든 것이라 함은 아내들의 생각에 적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경우는 모든 남편이 선뜻 그들의 아내의 뜻을 따르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고 사도의 의도에도 한없이 못 미치는 것이 되고 만다.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녀의 생각에 적합하다 여겨지는 것에 제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해서도, 거절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을 향한 복종과 순종은 가장 포괄적인 아내의 의무이다.

2) 남편을 향한 아내의 또다른 의무는 그에 대한 존경과 경의이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 5:33). 여기서 존경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존경과 경의이다.

[1]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만약 그의 재능과 품위가 그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법의 정하심 아래 남편이 아내에게 주가 되고 머리가 되는 관계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 아내는 남편을 셀 수 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특별히 택하시고 고르신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 남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녀의 머리와 안내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사람인 것이다.

[2] **존경의 또 다른 면은 두려움이다.** 그것은 사랑과 모순되는 비굴함이나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녀의 보살핌:** 아내는 남편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최고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성향에 그녀의 행동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고전 7:34). 그러므로 아내는 말과 몸짓에 있어서, 그리고 그녀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고맙고 다정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슬픔:** 사실, 좋은 아내는 거울과 같아야 한다. 거울은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얼굴의 특징과 모습을 담아낸다. 마찬가지로 좋은 아내는 그녀의 외적인 몸가짐과 내적인 감정을 그녀의 남편을 따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가 기쁠 때 기뻐하고, 그가 슬플 때 슬퍼하고 그가 기분이 상했을 때 비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을 존경하는 모습이다. 남편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를 대단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고 금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의 소리와 논쟁을 일으키는 발언 또는 훼방하거나 심술궂은 행동을 나타내는 짜증 많고 신경질적인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의 마음을 비통하고 슬프게 만든다. 그러한 자들은 주께서 남편을 주의 모형으로 삼으시고 주께 드릴 경의와 존경의 한 부분으로서 그에게 경의와 존경을 보이도록 명하신 하나님을 대단히 진노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3) 아내의 또 다른 의무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실 아내는 그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그의 영혼에 대하여:** 남편이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데 도와주고 적어도 거룩하고 흠 없는 행실로 지혜롭고 시의 적절하게 남편이 그의 의무에 임하도록 책임감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는 아내 안에 담긴 그 경건함을 높이 여기고 존경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도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고전 7:16)라고 말한다.

- **그의 육신에 대하여:** 그 육신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돌봄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 **그의 선한 이름에 대하여:** 남편에 대한 평이 좋아지고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남편에 대해 좋게 말하며, 그에 대하여 널리 퍼질 수 있는 추한 소문을 조용히 시키고 막음으로써 그를 도와야 한다.

- **그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 여기에 아내의 주된 도움이 필요하며, 아내는 이 일을 그녀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만들어야 한다): 비록 이익을 산출하지 못하고 재산을 조금도 늘리지 못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이 그녀에게 맡긴 것을 신중하게 절약하며 관리해야 한다. 그녀는 그 재산을 헛되고 무분별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무엇이든 지나치게 사용

하거나 낭비하는 것은 흠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녀가 분명히 공표되었든 또는 충분한 근거 위에 암암리에 승인되고 허용된 것이든 남편의 동의없이 전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적질과 다를 바가 없다. 아내의 올바른 임무는 신중하고 신실하게 그녀가 관리하고 돌보도록 맡겨진 가족의 일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아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잠언 31장 10-31절은 아내의 임무는 총체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족들의 일을 돌보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4) 아내의 또 다른 의무는 단장과 행동에 있어 단정한 것이다.

[1] **단장에 대하여:** 아내의 단장은 그녀의 위치와 지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저속한 화려함 또는 이상한 유행에 물들어도 안 되고 그와 반대로 시대에 뒤처지는 매우 오랜 특이한 모습도 맞지 않다. 교만은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주목받을만한 옷을 입지 않는 것이다. 사도는 그들에게 이러한 규칙을 알려준다. 여자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3-4).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한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딸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딤후 2:9-10). 사실 이것이 최고의 꾸밈이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만들고 모든 깨어있고 진중한 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든다. 사실 나는 값비싼 걸치장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도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너무 사치스럽거나 허영심에 의한 걸치장은 피하는 것이 옳다. 외모에 대한 치장에 대해 너무 많은 연구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정숙함과 겸손함, 그리고 선행으로 당신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라. 이러한 심령은 당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부요하고 아름다운 치장이다.

[2] **아내가 그의 걸모습에 있어서 단정해야하는 것처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도 단정해야 한다.** 그녀의 표정, 몸짓, 그리고 말은 반드시 그녀의 마음의 내적 평온과 평정을 보이는데 적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마다 욕정과 독을 내뿜는 고압적이고, 소란스럽고, 제멋대로인 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에게 더욱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¹²⁾” 고 했다 (잠 19:13).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은 설사 남편의 마음이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국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애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아내의 의무이다.

12) “떨어지는 물방울”은 물이 새는 지붕에서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불평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아내에 적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5. 순종, 정숙한 행동, 내적인 단장

출처: Expository Discourses on the First Epistle of the Apostle Peter

저자: 존 브라운(1784-1858):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자. 스코틀랜드 위트번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아내의 의무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언급되어 요구된다.

[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벧전 3:1-6)

1) 사도는 기독교 여성 아내의 첫째 의무는 순종이라고 말한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명령을 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2).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 3:18).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 늙은 여자로는 ...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딤후 2:1, 4-5)라고 명한다. 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우월함 및 지배를 주장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엡 5:21) 가정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자연과 계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정에서의 통치권을 남편에게 부여하셨다. 성경의 선포를 들어보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딤후 2:13).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고전 11:8-9).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전 11:7). 심지어 죄가 역사 속에 들어오기 전에도 남편이 다스렸다. 죄가 들어온 이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딤후 2:14)라고 설명한다. 그 후 하나님의 뜻이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 3:16).

이렇게 정하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참으로 합당하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 내에는 평화가 없이는 행복이 없고 질서가 없이는 평화가 없으며 종속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순종이 없이는 종속이 없다. 계속되는 싸움은 동등함 또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발생한다.”¹³⁾ 어떠한 형태이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에 순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유일한 질문은 그 권위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정의 경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인 것 같다.

아내의 순종은 결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주가 넓다. 아내의 순종은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종은 하늘의 주께 의무를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 여인들에게 해당한다. 레히톤은 “주의 권위가 근본이며 가장 먼저 의무를 요구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들의 권한과 특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주님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¹⁴⁾ 그러면서 “아내의 순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신하들이 왕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다. 아내의 순종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돕는 자로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훨씬 동등한 상태에서 생겨나는 순종이며 예의와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 레히톤의 말은 상당히 적절하다. 그는 계속 “이러한 종속을 싫어하는 것은 양 측의 부패로부터 생겨난다. 아내에게는 명령을 하고 싶은 비뚤어진 욕구가 있거나 적어도 순종의 의무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만이 있다. 이 욕구는 남편이 그의 권위를 무질서하게, 함부로 가혹하게 사용하는 경우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는 변화된 양심에 의해 아내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녀는 주를 향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남편의 못된 심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며 그녀의 인내와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주여, 저는 이 순종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겸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¹⁵⁾라고 하였다.

남편이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아내가 기꺼이 순종할 경우는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바라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또한 요구와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가 그녀의 남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라고 명하셨기에 그녀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롬 13:5) 남편의 권위에 순종한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주의 칭찬의 표시를 얻어낸다. 많은 여인들이 이 과정을 따름으로써 귀하고 유익한 삶을 산다. 따라서 많은 가정이 그러한 아내로 인하여 질서와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이 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귀하거나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가정 안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신이 뜻하는 바를 가장 많이 얻는 아내는 순종하는 아내이다.

2) 사도가 언급한 기독교 아내들의 두 번째 의무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다. 여기서 ‘행실’은 습관적인 행위로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정결한 행실은 노골적인 악이 없고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인 음행이 없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실, 그러한 악이나 음행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언급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정결한 행실’은 기독교 율법이

13) William Jay(1769-1853), *The Mutual Duties of Husbands and Wives* (London: C. Whittingham, 1801), 11.

14) Robert Leighton(1611-1684), *A Practical Commentary upon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s, 1864), 6.

15) Leighton, 7.

요구하는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과도한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피하는 것을 뜻한다. 기독 여성은 거룩한 품위를 통해 그들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거룩한 품위를 허무는 많은 것들, 곧 당돌한 자세, 뻔뻔한 표정, 경박한 대화, 예의범절에서 벗어난 제 멋대로의 행동, 대들고 따지는 저돌적인 분위기 등을 피하여야 한다.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멀리하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의 언어는 거룩한 여인으로서의 성품과 고백에 맞지 않는 모든 어리석은 말들과 적절하지 않은 농담을 피해야 한다. “수줍음, 감정 절제, 관심을 끌려는 마음을 피함, 순결함을 지키려는 의식, 안전한 자리에 있으려는 신중함, 위험을 분별하는 본능적인 조심성, 원수가 다가오거나 심지어 탐색조차 결코 허락하지 않는 조심성 등은 정결한 행실에 포함되는 덕스러운 모습이다.

이러한 “정결한 행실”은 “두려움”과 함께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남편에 대한 존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수줍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실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른 덕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들의 정결함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신앙적인 성품이다. 참된 신앙은 모든 덕목의 위대한 바탕이다. 불신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결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 행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대항할 것이다.

3) 내면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기독 아내들의 세 번째 의무는 그들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여성은 단장을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선지자 역시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렘 2:32)라고 말하면서 여성이 단장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여성이 단장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단장은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 단장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점으로 간주된다. 더러운 옷차림 및 부주의한 복장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과 다투지는 않지만 악용에 대해 반대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자연스런 인간의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고 훈련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 단장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도는 여성의 단장에 대해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 규칙을 제시한다. 그 규칙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 둘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소극적인 면은 “너희의 단장은 ... 하지 말고” (벧전 3:3)라고 한다. 이는 기독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 말아야 하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뿔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딤후 2:9). 그러면서 그

들은 기독 여성은 기독 여성은 딸은 머리를 해서는 안 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해서는 안 되며 단지 꾸밈이 없는 평범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기독 여성들이 이보다 더한 그릇된 성경 해석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의심할 여지없이 그릇된 해석이다. 이 구절들은 모든 단장을 적극적으로 금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구절들은 이러한 외적인 단장이 더 귀한 단장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 12:17)는 의미는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선호한다” 라는 뜻이다. 즉, 단장에 관한 성경 구절은 당신의 몸을 보석과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는 것보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으로 단장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부으라는 뜻이다.

동시에 나는 이 구절들이 기독 여성들이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고 본다. 기독 여성은 천박하고 부주의한 복장을 주의해야 한다. 사도 당시에 버림받은 여인들은 과도한 외적인 단장에 의해 구별되었다. 반면에 기독 여성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였다.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독 여성이 세상 여인들처럼 단장을 한다면 이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잠 7:10)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어떤 유행도 기독 여성에게는 그러한 옷차림을 허락될 수 없다.

기독 여성은 또한 옷차림에 있어서 과도한 지출을 삼가야 한다. 기독 여성이 값비싼 보석 및 장식물을 탐하거나 빠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구제 및 가난한 자를 입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선한 경건한 대주교는 “그러한 과도한 비용을 들인 단장은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며 사치를 일삼는다. 즉, 비록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의무인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못한다. 값비싼 옷을 입는 대신에 가난한 자를 입힌 자들은 임종의 때에 훨씬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사치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이러한 삶은 외적인 단장을 통해 교만을 부풀리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인색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¹⁶⁾

소극적인 명령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기독 아내들은 그들의 관심과 시간을 옷차림에 너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사도는 옷차림은 매우 부차적인 일이라고 암시한다. 기독 여성은 몸단장을 주된 일과 즐거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헛된 것들보다는 더욱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삶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시 그 선한 대주교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한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며 외적인 단장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리석으며 유치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그러한 어리석음과 유치함을 찾지 못하겠지만 상식 있는 나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릴 때 한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외적인 단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는 의아하게 여긴다. 참으로 외적인 단장 병에 걸리면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헛된 것을 걸치고는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풍채와 생김새가 잘 나서 우쭐하게 여기는 것 역시 가련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일부이다. 하지만 단장은 값비싼 것이든 유행에 따르는 것이든 단지 외적인 것이다. 텅 빈 가벼운 마음은 풍선처럼 원가에 의해 부풀어진다. 자

16) Leighton, 352.

신 안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속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혐오하는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때려잡고 그러한 겉멋에 빠져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여전히 외적인 단장을 찾고 따른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은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었다. 그러므로 천박하여진 영혼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은 허망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무가치한 외적 단장으로 그 허망함을 채우고자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요 단장이다. 오직 주의 성령과 은혜만이 그 영혼을 풍성하게 단장할 수 있다.” 17)

이제 사도는 단장에 대해 적극적인 명령을 내린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4).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단어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하라” 고 할 때 “숨은 사람”은 속사람, 곧 새로운 피조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숨은 사람은 썩을 몸에 입을 금이나 보석과는 달리 “썩지 아니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품을 뜻하며 그 성품은 썩지 않는 마음, 곧 하나님 앞에 값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숨은 사람”은 몸의 외적인 것과 비교되면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된다고 해석한다. 즉, 사람은 썩어질 금과 아름다운 옷으로 외적인 단장을 하는 것을 훌륭하게 평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을 값지게 여긴다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사도의 생각과 더 어울린다고 본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단지 마음이다. 마음은 지성과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며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독 여성들 및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외면, 즉 몸보다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의 아름다움과 단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면의 단장은 영혼의 속성과 잘 맞아야 한다. 즉,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영혼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단장 역시 그러해야 한다. 영혼을 위해 알맞은 단장은 진리와 거룩과 지식,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겸손,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총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이다. 내면의 사람은 이러한 보석들로 단장되어야 한다. 외면의 사람(몸)은 부패한다. 그것은 먼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지로 돌아간다. 사람의 몸은 아무리 멋지고 강하고 우아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부패하여 무서운 해골 및 뼈들과 먼지더미가 되어 주변의 먼지들과 구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몸과 관련한 모든 단장들 역시 부패한다. 종이 벌레는 가장 좋은 옷도 썩게 한다. 은과 금은 없어질 수 있다. 금은 불에 의해 연단되지만 사라진다. 하지만 영혼과 내면의 단장은 영원하다. 영혼은 멸할 수 없다. 내면의 단장은 입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영혼이 영원하다면, 내면의 단장 역시 영원하다.

멸하지 않는 단장 중에 기독 아내들이 소유해야 할 것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기독인 아내를 내면적으로 단장하

17) Leighton, 353.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단장을 더럽히는 것은 불만, 짜증, 안달, 그리고 다투는 심령이다. 미움은 모든 곳에 있지만 여성의 미움은 강하며 아내의 미움은 더 강하다. 이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잠 27:15-16).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1:19).

반면에 끝없이 많은 가사들과 사건 속에서 안정된 심령과 인내를 유지하는 기독 여성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정이 상하여도 자세를 흐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도 주장하지 않으며 기꺼이 양보하고 적응하는 여성!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많은 부탁을 들어주며, 불평보다는 참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참는 여성은 얼마나 귀한가!

이러한 단장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화려한 옷과 비싼 치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대부분은 내면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남자들이다. 하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한 단장을 칭찬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 주의 칭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의 칭찬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한 여인은 스스로가 칭찬하거나 남자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벧전 1:7). 그 날에 특별한 재능과 학식과 성공적인 경력으로 세상을 흥분시키고 또한 대대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왔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지 않는 어떤 남자들은 수치와 모독 가운데 처할 것이다. 하지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겸손히 가정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가운데 여러 시련들을 인내하며 감당한 여인은 그녀의 “내면의 영광” 때문에 왕중의 왕이 높이시며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 25:21)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6. 존경과 복종

출처: The Works of George Swinnoek, Vol. 1

저자: 조지 스윈록(1627-1673):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에서 교육을 받은 청교도 목사. 영국 메이드스톤에서 출생

역자: 오병재

엎 5:22; 골 3:18; 벧전 3:1-3에서처럼 성령님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들을 언급하는 곳마다 언제나 먼저 아내의 의무를 정해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데브넌트(Davenant)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아내의 의무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남편의 주된 의무인 애정이나 사랑은 즐겁다. 그러나 아내의 주된 의무인 순종과 복종은 고통스럽다. 순종은 머리가 되는 것에 매우 반대되는 것이다. 만약 멍에가 그들의 목에 가까이 온다면, 많은 아내들은 길들이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그것을 발로 차거나 내던져 버린다. 그들의 의무가 더 힘들수록, 그들이 양심적으로 그것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남편의 사랑은 상당히 많이 아내의 복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로부터 애정을 받는 것은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순종하는 아내만이 남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여,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이러한 관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규칙으로 삼고 그 안에서 경건함을 당신의 일로 삼으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 31:30). 내적인 아름다움은 실로 칭찬 받을 만하다.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어진 아내는 그녀 자신에게 명예이고, 남편에게는 면류관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최고의 장식이다(잠 12:4). 그녀의 거룩함과 그녀의 남편 모두 그녀를 칭찬할 것이다.

1) 그녀의 거룩함: “그녀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녀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 31:31). 사람들이 제시할 것이 죄의 검은 반점들 밖에 없다면 교만은 그것들을 사슬처럼 두를 것이며 무신론은 그들을 옷처럼 입힐 것이다. 그러나 어진 여성에게는, 은혜는 그녀의 영광이고 거룩함은 그녀의 아름다움이다. 신앙이 그녀를 명예로운 기념물로 세워주기에 세월도 지옥도 그 어느 것도 그 기념물을 무너뜨릴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얼마나 유명한가! “그 중의 어떤 사람과 ...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행 17:4). 사도들이 겁쟁이로 드러날 때,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영원한 영광으로 기록하신다.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행 27:55). 여성들은 때로는 남성들보다 더 훌륭하게 처신하였다. 더 약한 용기들이 가장 뜨거운 불에도 견디어 냈다. 순교자 시대에는, 몇몇 여성들이 유명한 순교자가 되었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여자는 단지 자연의 일탈이며 많은 이들은 그들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과 비난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여성들을 남자와 근본적으로 같고, 또한 천상의 완벽함을 지닌 자로서 묘사한다. 그들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는가! 그리고 어떤 남자라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능하게 한 한 여인은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리를 차지한 사실이다.

2)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칭찬할 것이다. 인자한 아내는 착한 남편을 만족시키며 나쁜 남

편을 잠잠하게 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 31:28).

아내의 특별한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들에 있다. 첫째, 남편을 영광스럽게 함에 있어서, 남편 옆에 있는 아내는 그 집에 고정된 모든 별들보다 훨씬 더 빛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남편에게 양보하고, 남편을 더 위해 줄 것을 명하셨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다가가면서 남편을 향한 복종의 표시로 “베일을 쓰고, 자기 몸을 가리었다” (창 24:65). 이같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큰 존경의 표시이며,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호렘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을 때 그가 얼굴을 가리었던 행위와 같다(왕상 19:13).

이런 존경심은 그녀의 애정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그녀는 남편을 한 구성원으로 사랑하고 그를 머리로서 경외해야 한다. 그녀의 두려움은 종이 주인에게 갖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갖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내의 두려움이 전자와 특별히 다른 점은, 노예는 매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내는 매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의 두려움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갖는 두려움과 점점 더 달라지는데, 자녀들은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두려움도 달라진다. 아이는 더 멀리 떨어질수록 그는 더욱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외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교회에 대한 예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 어느 것에서든 그분을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분에게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자세는 남편의 권위에 동의하며 의지는 그녀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 자세를 지키려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자세를 거부하지 않도록 그 의지에 두려움을 더한다. 그 후에야 그녀는 남편을 경외한다는 말을 듣는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살 것을 바란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붐이라” (벧전 3:2). 존경스러운 아내는 아마도 경건한 남편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 머리는 몸의 좋은 태도를 위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녀 안에 있는 경외심은 남편의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경외심의 부족으로 악명 높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독자여! 그 여인의 슬픈 열매를 보라.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마음 속에서 그를 경멸하였다. 여기에 그녀의 잘못이 있었다. 그녀는 다윗을 그녀의 머리로서 경외하는 대신에, 마음으로 그를 경멸하였고 이는 그의 거룩한 행동을 경멸한 것이었다(대상 15:29). 그러나 그 열매를 주목하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삼하 6:23). 하나님은 그러한 뻔뻔하고 무례하였던 여인들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만약에 그녀가 그녀의 머리를 경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녀의 육체를 벌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것이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녀는 환호하였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눅 1:25). 지금, 다윗이 미갈의 눈에 경멸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경멸을 받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된 미갈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여동생 메랍의 자녀들의 일부를 입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녀를 벌하셨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갈은 많은 딸들을 가졌고, 그 딸은 그녀의 남편들을 업신여겼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것이다. 그 여인들은 남편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

가는 것이 무섭다” (삼하 6:23; 21:8-9; 히 10:31)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존경은 그들의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벧전 3:6). 이는 아침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며, 그의 자부심을 희화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위치를 기꺼이 알고 있는 표현이었다. 이세벨과 심보라는 그들의 남편들에게 건방지고 악한 말을 사용한 자들로 기록한 문서에 낙인 찍혔다(왕상 21:7; 출 4:25).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대답하려면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 만약에 그녀가 그에게 조언하려면 온화함으로 해야 한다. 만약에 그녀가 그를 훈계하려면 그것은 종의 낮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만약에 그녀가 그에 대해 말하려면, 존경을 담아서 해야 한다. 만약에 그녀가 그에게 말을 한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그녀의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 어떠한 아내들의 잘못은 매우 역겨운데 남편을 부를 때 존칭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친구”, 심지어 “이 바보”라고 부른다. 사울이 다윗을 비웃으며 “이세의 아들” (삼상 22:9, 13)이라 불렀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목수의 아들” (마 13:55) 이라고 불렀다.

성경은 아내를 “한 남자의 영광” (고전 11:7)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뛰어난 창조물인 여자가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큰 명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편을 존경하기를 거부하는 아내들은 분명히 남편들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아내가 일단 남편에 대해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악한 잡초는 너무 무성해서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퍼지게 되어 어떤 좋은 것도 자라날 수 없을 것이다. 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대신 언제나 남편과 다투고 언쟁할 때 그러한 삶은 가장 슬픈 삶이다. 아내들 중에는 개들보다 더 나쁜 아내들이 있다. 개들은 낯선 사람에게는 짖지만, 주인에게는 짖지 않는다. 그러나 나쁜 아내들은 그 집안의 주인인 남편에게 감히 저주스러운 짜증과 격노를 감추지 않는다. 사실 마귀들마저 그들 내부에는 질서가 있다. 그들은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를 왕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 못된 아내들은 자신들 위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신속하게 그들의 남편들이 지내기에 너무 뜨거운 곳이 된다. 그러한 아내를 동반자로 삼는 것은 뱀을 동반자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뱀은 죽일 때 갑자기 죽인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서서히 죽게 만든다. 이는 그 남편의 삶 전체가 공포와 죽음의 분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시큼한 허브들을 맛보지 않아서 감사한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그러한 아내를 둔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왔다. 그러한 아내를 둔 남편의 외적인 모습은 지옥의 한 면을 보는 것처럼 비참해져 있었다.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아내들의 턱에 이빨이 있는 것만큼 그들의 혀에 물집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목이 쉴 때가 남편들에 가장 좋은 때이다. 만일 그러한 아내들이 더 좋은 언어를 배울 때까지 부부 사이에 흥을 만들고 가족에게 질병을 발생시키는, 인간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괴물들을 재갈 먹일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사실,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명칭들은 그들의 우월성과 아내의 순종을 말한다. 그는 그녀의 주(벧전 3:6)라고 불렀고, 그녀의 주인(스 1:17), 그녀의 인도자(잠 2:17), 그녀의 머리(고전 11:3)라고 불렀다. 이러한 존경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다.

1) 여자가 남자가 창조된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먼저 존재하였던 것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이었던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딤펴전 2:13).

2)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고전 11:8). 그녀는 그녀의 뿌리인 남자로부터 나온 가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 남자는 그녀의 존재의 기원이었다. 자, 그 결과는 기원보다 덜 귀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3)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고전 11:9). 목적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은 목적 그 자체보다 우등할 수 없다.

4)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창 3:16; 딤펴전 2:14). 죄는 부끄러움을 낳았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지은 여자는 최고의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담이 그녀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5)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기 때문이다(엡 5:23). 지체들은 머리에 종속되어 있으며 거역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존경의 의무는 필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6)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고전 11:7). 남자 안에는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의 비슷한 점이 있다. 여자는 그녀의 원래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처럼 거룩하고 행복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복종이 아니라 통치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특혜이다. 복종은 여성의 의무이다.

7)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내를 다스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6)...

독자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를 향한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언어는 무례하지 않고 존경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입을 삐죽이 내밀지 않을 것이고 우울해하지 않을 것이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발끈하지도 않을 것이다. 도리어 온화함으로 웃 입을 것이다. 주의 합법적인 규칙을 순종한다면 당신은 불평하지 않고 남편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은 그 마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합법적인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남편들의 권위를 문제 삼고 대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거룩한 여성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였던 도르가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역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세벨과 같은 아내가 집안을 다스리면 그 집안은 얼마나 악명이 높겠는가? 그리고 아합과 같은 남편은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만약 남편의 아내인 달이 태양을 쥐고 흔들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것은 그 집의 명예를 가리는 일식이다. 사도가 말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

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5:22-24).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알려주신다.

첫째, 복종의 규칙: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하는 아내는 창조주의 질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도 뒤집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도록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배필이라고 지음 받았다. 이방인들의 양심을 담은 아하스루스의 율법을 보면, 모든 남자는 그의 집을 다스려야 한다고 쓰여 있다.

둘째, 이러한 복종의 근원: “주께 하듯 하라.” 그녀가 남편에게 행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충분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를 향한 남편의 애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 내 남편이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전자는 십자가이지만 후자는 저주이다. 만약 남편이 그의 의무를 방관하고 또한 악하다면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얻기 위해 더더욱 그녀의 책임을 더할 필요가 있다(벧전 3:1-2). 더욱이 이 순종을 명령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내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복종을 해야 하는 근거 또는 이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엡 5:23). 그의 권위는 아내의 복종을 명령한다.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머리 위에 어깨가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겠는가. 아내가 남편 위에 균림하려는 것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

넷째, 유형: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의 순종은 따스하다. 신실함은 교회의 영광이다. 교회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교회의 순종은 꾸준하며 교회의 삶에 늘 함께 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 119:112).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그들의 마음은 손과 함께 해야 하고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만일 멋진 거울이라도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모습을 반사하지 못한다면 그 거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아름답고 부유한 아내가 그녀의 태도와 상태에 있어서 그녀의 선한 양심으로 남편의 성향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정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합법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복종해야 한다. 만일 남편이 불편한 것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상냥하게 그 요구를 취소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 이유를 겸손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계속 요구한다면, 그녀는 고통스럽더라도 복종해야 하고, 그 요구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녀는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전혀 그렇게 까다롭지 않더라도 당신은 진정으로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비록 그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즐겁게 받지 않더라도

, 하나님은 그것들을 좋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분명하다. 남편의 완고함 때문에 당신이 의무를 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수록 주께서 당신의 손에서 그 수고를 더욱 친절하게 받지 않으시겠는가? 다만, 그가 죄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녀는 반드시 순종을 거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 3:18). ‘주 안에서’ 로 기록되어 있고 ‘주를 대항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남편보다 더 사랑을 받으셔야 하고 남편 전에 기쁨을 받으셔야 한다.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기쁨을 받아야 한다. 만일 보안 판사가 그의 이웃을 명하여 왕을 대항하라고 한다면, 그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의 이웃이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은 모두 반역자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판사가 왕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왕에게 순종하기 위해 아래 관원에게 명을 내린다면 그 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실, 제멋대로 행하는 아내들로 인한 결과는 슬프다. 자연의 질서가 방해받을 때, 거기에는 지진이나 천둥이나 폭우와 같은 큰 어려움들이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질서가 거부되면, 거기에는 슬픈 어려움들이 따라온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한 질투로 인하여 지진처럼 떨린다. 그들의 집은 천둥처럼 시끄러운 소리와 잔소리로 가득 차게 된다. 그들의 삶 전체가 슬픔과 쓰라림으로 감당 못할 상태가 되어 버린다.

7. 불순종하는 남편

출처: Expository Discourses on The First Epistle of the Apostle Peter, Vol. 2

저자: 존 브라운(1784-1858):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자. 스코틀랜드 위트번에서 출생

역자: 박민정

그리스도인 기혼 여성 중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불신자 남편을 둔 여성들이 있다. 또한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성품을 잘못 판단함으로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다. 실제 믿음이 없어도 종교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 슬프게도 경험이 부족하여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는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한다.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는 그러한 경우가 가장 흔할 것 같은데 바로 결혼이 성립되는 당시 양 당사자 모두 회심 전이었다가 결혼 이후 아내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아내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반면 남편은 여전히 신앙이 없거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상태,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 아내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남편은 계속해서 반역의 길에 남아있게 된다. 막을 수도 있었을 일반 상황에서는 분명히 결혼이 금지되었겠지만, 이미 혼인이 성립된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상황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파기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아내는 더욱 더 남편을 향한 더 많은 애정과 존경으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내의 회심이 부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인식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이끌기 마련이므로, 그녀는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이기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이 어려운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아주 강력하고 힘이 되는 동기를 제시한다.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쓰임 받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매우 열악한 경우를 언급하는데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의 예이다. 그 남편은 복음을 향한 관심과 믿음과 순종을 거절하여 왔다. 신자인 아내는 분명히 그 남편이 설교자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그를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남편은 이를 거부했을 수 있고, 혹은 설교를 들으러 나왔음에도 감화 받지 못한 채 떠났을 수 있다. 심지어 코웃음을 치는 등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수도 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 남편을 다시 말씀의 영향력 아래로 인도하려 할 것이다. 남편이 듣지 않으려 한다면 성경 구절이나 좋은 책을 읽은 후 그 메시지를 남편에게 친절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차라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법한 경우들도 있었다. 변화를 일으켜보려는 직접적인 시도들은 오히려 편견, 더 강한 저항, 마음의 굳어짐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제 내려놓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는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내의 의무를 의식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동기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발견된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

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 남편은 그가 불순종할 어떤 말을 듣지는 못하여도 분명히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고 있는 아내의 거룩하고 절제된 행실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편견에 사로잡힌 자는 말보다 행동을 관찰한다”¹⁸⁾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내가 꾸준한 애정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에 힘입은 것임이 명백히 드러날 때, 아무리 생각과 분별력이 없는 남자라 할지라도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내의 회심이 그녀의 행동에 불러온 선한 변화들은 분명히 남편으로 하여금 “회심이 나온 결과가 선하다면 회심이 나쁜 것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의 편견은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에는 화를 내며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했던 주제들에 대한 대화를 자발적으로 시작하거나, 그리스도인 모임에 아내와 동반하더니 궁극적으로 예전에 마음과 귀를 닫았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의심의 여지없는 거룩한 삶, 자기 부정과 온유, 사랑, 겸손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교가 되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로만 아닌 그에 걸맞은 행동과 노력이 따를 때 그 의미가 증폭된다.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남편 뿐만 아니라 악한 성정의 남편에게도 조용히 즐겁게 의무를 다하며 인내하는 아내의 삶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내의 착한 행실, 그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축복이 남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사실 드문 일이 아니다.

유대교 및 이교도 남편의 회심을 묘사할 때 영어에서는 잃었던 남편을 다시 ‘찾는다(won)’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한다.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고수하며 진정한 행복과 영생의 길을 잃은 남편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함 받아 영생을 얻고 구세주의 품에 안긴다는 뜻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레히톤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며, 하나님은 그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제시된 이러한 동기는 분명히 매우 설득력이 있는 동기이다. 그 설득의 힘은 다음의 인용구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영혼의 구원, 그 중에서도 남편의 구원이란 수많은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는 일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에서 서로를 잃지 않도록 하자. 죽음이 초래하는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하라. 부부의 우정이 시간의 황량함을 극복하고 무덤을 넘어서는 영원한 승리로 새롭게 되도록 하라.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관계에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하라. 아내들이여, 그대들의 수고의 결실이 가져올 행복을 생각해 보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살아갈 여생의 즐거움과 서로에게 건넨 조언의 말이 얼마나 따스할지를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골방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가족 제단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가족 제단이 되었으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 그대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그대의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느낄 생명력을 생각해 보라. 사람들과 천사들이 모인 모임 앞에서 당신의 남편이 ‘저 곳에서 우리를 묶어준 섭리를, 또한 이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인

18) Robert Leighton(1611-1684), *A Practical Commentary upon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은 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 중앙에 있는 생명 나무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할 그 날에 당신의 기쁨과 영광이 어떠하겠는가!” 19)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이러한 동기를 품을 때 기대되는 실제적 결과에 대해 한 교부는 이렇게 묘사한다. “현명한 여성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력에 남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혼자서라도 끊임없이 덕을 추구하며, 미덕과 구원을 위한 일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뜻에 거스름이 없도록 모든 일에 있어 그의 동의를 얻어 행할 것이다.” 20)

19) William Jay(1769-1853), “The Mutual Duties of Husbands and Wives” in *The Standard Works of William Jay*, Vol. 3.

20)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in *Fathers of the Second Century*, Vol. 2.

7. 남편의 두 눈에 사랑스러운 아내

출처: Home-Making

저자: J. R. 밀러(1840-1912): 장로교 목사이자 뛰어난 작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프랭크퍼트 스프링스 출생

역자: 조현목

큰 의미에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신실함이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잠 31:11). 의심의 그늘은 결혼 생활의 평화를 파괴한다. 참된 아내는 그녀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 자신이 남편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낸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이 그에게 항상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 그는 아내의 가정 운영을 신뢰한다. 남편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는다. 그의 아내는 신중하고 현명하며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자신의 모든 이해관계에 있어 진실한 사람임을 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의 경영을 안전하게 아내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참된 아내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아내의 낭비와 사치는 많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으며 많은 집들을 망가뜨렸다. 반면에 어떤 남자들은 아내의 신중함과 현명한 가계 운영 덕분에 번영을 누린다.

모든 참된 아내는 남편의 관심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남편이 아내를 마음속에 그리며 매일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동안 아내는 오로지 자신의 남편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한다. 삶의 짐이 그를 짓누를 때 그녀는 사랑의 연민과 응원, 그리고 강화로 그 짐들을 덜어준다. 아내는 열심과 열정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무겁게 끌어내리는 추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항상 더 고귀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의 힘이다.

모든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이처럼 복된 존재는 아니다. 때때로 여자는 남자라는 튼튼한 참나무에 둘러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비유된다. 그러나 많은 다른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다. 몇몇은 여름이 되면 푸른 앞으로 나무를 덮어 나무를 위해 아름다운 옷과 영광스러운 관을 두르고 가을이 되면 가지에 풍성한 보라색 열매송이들을 맺는다. 반면 다른 종류의 포도나무들은 오직 참나무의 생명을 빨아먹고 그의 활력을 파괴하기 위해 나무에 팔을 휘감으며, 결국 참나무는 위엄의 옷과 관이 벗겨진 채 보기 흉하게 썩어져 불에 던져질 뿐이다.

참된 아내는 그녀의 무한한 사랑으로 '남자의 모든 힘을 천국 위로 향하게 하며' 그의 인생을 고귀하고 강하며 위엄 있게 만들어 준다. 아내는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의지 가운데 남편에게 붙어있으면서 남편 내면으로부터 모든 고귀하고 풍성한 것들을 끄집어낸다. 아내는 남편을 용기와 진심으로 강화시키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아내는 남편의 언행과 영혼의 모든 교만하고 거친 것들을 부드럽게 해 준다. 아내는 남편에게 세련되고 품위 있는 온화한 은혜의 옷을 입힌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의 작은 바람마저 결코 놓치지 않고 귀히 여기면 그녀는 참으로 그의 여왕이 된다. 그녀는 그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그의 삶이 항상 올바른 길로 계속하여 위를 향해 가도록 이끈다.

하지만 어떤 아내들은 오직 어두운 그림자에만 둘러붙는 포도나무 같다. 그들의 의지는 약

하고 게으르며 무기력하다. 이러한 나무들은 참나무에 기대지만 어떠한 힘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들러붙어 생명을 빨아 먹을 뿐이다.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건네지 못한다. 이러한 여자들은 소파에 축 늘어져 있거나 한적히 거리를 거닐며 감상적인 소설을 꿈꾸고 거실에서 남에 대한 험담이나 한다. 그들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며 남성다운 따뜻한 사랑에 짐이 될 뿐이다. 그들은 남자의 삶을 더 강건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는커녕 남자의 힘을 빨아들이며 그의 능력을 해치고 그의 성공을 방해하여 그가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게 만든다. 참된 아내도 달라붙고 기대지만 그들은 남편을 도우며 감화시킨다. 그 남편은 모든 삶 가운데서 그녀의 완전한 사랑의 감화를 느끼며 살아간다. 수고로움은 덜하여지고 짐은 가벼워지며 삶의 전투는 덜 치열해진다. 왜냐하면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과, 모든 일에 동감하며 사랑하는 아내의 심장과, 하루의 일을 마쳤을 때 들리는 아내의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아내도 그녀의 충실한 신실함과 그녀의 다정한 삶을 통한 적극적인 감화가 얼마나 많이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게 하고 그의 삶에 힘을 주며 성공하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의 어여쁜 어린 아내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통할 때 나무꾼의 도끼질은 가볍고, 모루에 내려치는 목직한 소리는 피곤함이 아닌 음악이 되며, 농부는 쟁기를 가지고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기계공의 힘든 일은 아름다운 후렴구로 가벼워진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의 기쁨과 안락을 위해 조심스레 사랑스러운 환영을 준비한다. 그의 집을 돌보는 사랑스런 아내 덕분에 이젤에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상상은 캔버스 위로 옮겨지며,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한 글을 쓰는 저자는 아내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가장 따분하게 보였던 주제들이 신선하고 재미있게 보일 것이다. 신뢰하는 어린 아내가 배웅할 때 했던 응원의 말들은 현명하고 평온한 아내의 마음과 함께 변호사인 남편을 따라다니며 그가 사건을 균형 있게 준비하고 더 명확히 생각하여 그의 소송을 더 효과적인 웅변으로 변호할 수 있게 한다. 의사는 아프고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풍성한 마음으로 병상에서 치료할 것이다. 젊은 목회자는 집에 돌아갔을 때 보게 될 사랑의 미소를 기억하며 그를 신뢰하는 그의 양들의 어려움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훨씬 더 열성적이고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²¹⁾

좋은 아내는 좋은 주부다. 필자는 성숙하지 못한 상상들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깨지기 쉬운 감상적인 꿈은 가혹한 현실의 삶 가운데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가장 진귀한 행복의 요소이자 가정의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주부의 근면함과 부지런함이다.

그리스 철학자가 밤에 산책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다 발을 헛디더 넘어졌다. 그의 동료가 이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의 발이 땅에 있을 때 별들에 머리를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아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로맨틱한 이상향에 두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비밀이 놓여 있는 자신의 손 가까이의 현실의 의무들을 무시한다. 그들의 발이 일상의 바닥위에 놓여 있는 동안 그들의 눈과 머리는 별들 가운데 있다. 그들

21) Eunice White Beecher, aka Mrs. Henry Ward Beecher, "Long Engagements or Early Marriages" in The Christian Union, Vol. 24, No. 1, New York, July 6, 1881.

이 발을 헛디디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그 집을 행복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아내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궁전에서든지 오두막집에서든지 어느 집에서나 좋은 규칙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그들은 구체적인 집안 살림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범한 삶 그 이상의 것들을 꿈꾸기 때문이다. 요리, 빵 굽기, 청소하기, 먼지 털기, 수선, 다림질과 같은 단순한 내용들은 고상한 대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빵이 단가 쓴가, 오트밀이 잘 구워졌는가 탔는가, 식사 시간이 잘 지켜졌는가 늦어졌는가 하는 것들이 가정 생활에 중요하다는 말은 행복한 연인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일상적인 문제들이 결혼 생활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은 그들에게 모독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매우 아름다운 꿈들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 꿈들이 결혼식 종소리의 메아리나 신부의 장미꽃 향기보다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갓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방 안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달콤한 사랑의 감정 외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일상의 삶이 시작될 때 구름 위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이 발 딛고 있는 평범한 흙을 디딘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이 평범한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늘 높이 탑을 세우고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며 햇빛의 위엄이 빛나고 온 세상이 흠모하는 궁전은 반드시 평평하고 단단하며 곧은 반석 위의 평범한 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랑은 아주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 자신의 고귀한 감정과 부드러운 애정과 달콤한 사랑의 궁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멋진 집에서 두 영혼이 함께 결혼 생활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살 것이다. 하지만 그 궁전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감상적이지 않은 냉담한 돌들이 있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그 토대는 바로 집안 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떤 젊은 연인들의 꿈보다는 성실히 차려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잘 정돈된 집, 질서, 시스템, 신속함, 정확성과 같은 평범한 것들에 달려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부드럽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가장 평범한 음식이 아주 맛있는 진미가 되며 아늑한 가정이 매력적인 곳이 된다. 남편들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천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훌륭한 살림이라는 중요한 토대를 필요로 한다. 제 시간에 식사가 차려지지 않고 음식이 형편없이 조리되고 쌀쌀맞게 차려지는 식탁에서 관계의 소원이 시작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살림을 잘 하지 못하면 집안에는 어느새 털끝만큼의 로맨스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아내가 집안일에 대해 무능하다고 판명되면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사랑의 환상은 곧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록 처음의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결혼식 날의 꿈들을 이루는 아내는 좋은 주부임에 틀림없다.

모든 아내의 첫 번째 의무는 자신의 집을 가꾸고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녀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을 자신의 집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을 끝내기 전까지 그녀는 다른 일을 하러 밖에 나갈 권리가 없다. 바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집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위해 잘 가꾸어야 할 장소로 여겨야 한다. 아내가 자

신의 집을 그녀의 모든 지혜와 기술로 가꾸기 전까지 그녀에게 부녀회나 선교 모임, 어머니 회, 금주모임,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바깥 사역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셨던 문 안에서의 사역을 무시한 아내들이 있다. 그들은 넓은 곳에 펼쳐져 있는 인간의 필요와 슬픔을 위한 눈과 마음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주변에 놓인 사랑의 사역을 위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도로와 길거리에서 천사의 일을 하는 동안, 천사들은 그들이 무시한 그들의 신성한 집안일에 대해 슬퍼했다. 그리스도가 집 안에서 하신 일이 그분이 모든 아내들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어떠한 거룩한 활동들도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실패하게 한 죄값을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도 결코 갚을 수 없다.

좋은 아내는 관대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녀는 욕심이 많거나 이기적이지 않다. 그녀는 절약하고 창고를 쌓으면서도 고통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그녀는 가장 지혜롭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하면서도, 바깥에서 연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냉담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필자는 관대함과 배려가 결여된 채 그욕한 풍요로움에 이르는 참된 여성상을 떠올릴 수 없다. 아프고 슬픈 자들을 볼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 여자,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손을 내밀지 않는 여자는 영광스러운 여성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놓친 여성이다.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할 곳은 바로 그녀 자신의 집이다. 그녀의 가장 거룩한 사역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상함이다. 그녀의 손은 슬픔이 있는 곳에서 눈물을 닦아낸다. 아픔이 있는 곳에서는 그녀는 다정한 간호사다. 그녀는 남편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자기 마음에 올려 놓는다.

하루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편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 향기로운 사랑을 만난다. 다른 친구들은 그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녀만큼은 변하지 않는 충실함으로 그에게 달라붙어 있다. 우울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직한 그녀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희망의 별들처럼 항상 그의 두 눈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는 그녀의 미소 아래 ‘바람에 찢겨진 햇빛 속의 꽃잎처럼’²²⁾ 그의 마음이 다시 힘 있게 뭉친다. 남자들은 종종 이 땅에서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아내에게서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때 어둠 속에서 영광이 빛난다. 주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끔찍한 슬픔과 싸움하실 때에도 한 천사가 주님을 섬겼다. 천사가 주님 곁에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부드러운 위로의 목소리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고통당하는 주님께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는가!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 빛나는 메신저가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겠는가? 결코 아니다. 천사들은 사람을 친히 방문할 기회를 선택한다. 남자의 삶이 어두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짐이 짓누르고 슬픔의 무게가 그의 영혼에 산처럼 느껴질 때, 역경이 그를 산산조각 내어 부술 때, 치열한 싸움 가운데 모든 힘을 다 쏟는 때에 참된 아내의 강력한 사랑의 찬란한 영광이 그의 눈앞에 비추인다. 오직 그 때 남자는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천사를 알아보게 된다.

아플 때 참된 아내는 얼마나 사려 깊고 능숙하며 부드러운 간호사인가! 유혹과 역경 또는

22) William Henry Davenport Adams (1828-1891), *Woman's Work and Worth in Girlhood, Maidenhood, and Wifehood* (London: John Hogg, 1880), 38.

어려움으로 고민할 때 그녀는 얼마나 영감이 되는가! 불행이나 재앙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고귀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녀의 용감함은 남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마음 아파하는 대신에 그녀는 오직 영혼의 고상한 능력을 발휘한다. 슬피 울거나 푸념하거나 절망함으로 그 불행에 열 배의 짐을 얹는 대신에 그녀는 기꺼이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소망과 힘의 사역자가 된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사치와 안락한 삶에서 소박한 집, 단순한 생활, 작은 환경으로 돌이킨다. 이러한 상황들과 경험에서 여자의 영혼의 대단한 면모가 드러난다. 많은 남자들은 불행 속에서도 아내의 강력하고 강화하는 연민과 헌신적인 도움 덕에 다시 의기양양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다른 남자들은 그의 옆에 있는 아내가 주어진 기회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격렬한 싸움에서 패배하고 불행의 실패자가 되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참된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한 신뢰를 준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 비밀이 없다. 아내는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남편에게 전하기 불편할 경우 그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느낌, 모든 소망, 모든 욕구와 갈망, 모든 기쁨과 아픔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귀에는 모든 비밀을 말하는 반면, 자신의 신성한 가정생활에 관한 어떠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결혼 생활에 작은 마찰이나 불만이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탓하며 화나게 하거나 또는 고통스럽게 했는가? 남편이 이러저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 실망과 고통으로 속상해 하며 아파하는 아내는 그녀의 문제를 자신의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유혹보다 그녀의 진실함과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회복하는 데 더 치명적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된 불만들은 치유되지 않은 쓰라림으로 남는다. 현명한 아내는 불화와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인내하며 사랑하면서 그녀의 비빌스러운 불행을 오직 주님과만 나눈다.

사랑은 다른 눈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아내에게서 본다. 사랑은 그녀의 흠을 감추고 그녀의 매력적이지 않은 면모들을 변화시킨다. 결혼 생활의 과제들 중 하나는 그녀가 사는 동안 남편의 눈에 이러한 매력적인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얼굴빛이 희미해지고 목소리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사라진 때에도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모든 참된 가정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옷과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나 미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결혼식 날 남편의 마음속을 차지했던 자신의 자리를 항상 잘 지키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 이전과 같이 자신의 언행과 그를 향한 태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모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우아한 것들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또한 모든 공격적이고 여성스럽지 못한 것들을 주의 깊게 피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살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여자도 단정치 못하거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남편의 왕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그녀는 정신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아름다움을 옷 입으려 한다. 남편은 해가 지날 때마다 그녀에게서 언제나 새로운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된다. 삶의 수고와 우여곡절로 인해 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이 사라져갈 때, 빛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잃어버린 매력을 대체하기 위해 더욱 더 많아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아내는 오직 자신의 남편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마치 꽃들이 자신의 꿀을 사랑스레 모으는 손에 건네듯이, 온화한 매력과 은밀한 우아함과 같은 것들이 오직 남편의 기쁨과 영감을 위해 남겨져야 한다.”²³⁾ 아내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남편을 기쁘게 하는 데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을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따라서 아내는 가장 달콤한 매력을 자신의 남편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새로운 깜짝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녀가 어떻게 보이든, 기분이 좋은 나쁜 남편이 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밝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나른함과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가장 밝고 사랑스러운 존재여야 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언제나 서로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또 다시 말하는데, 아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며 또한 그녀의 남편의 성격과 직업, 그리고 그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아내가 남편을 사로잡는 힘은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의 삶에서 여왕의 자리를 지켜 나간다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을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 아내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모든 미래를 흥하게 하거나 망칠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내가 고귀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허영이 많고 경솔한 사람일 경우, 그녀는 다만 남편의 열정을 식게 하고 그의 결단을 약하게 하며 성실히 노력하는 그를 결길로 끌어낼 뿐이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 고귀한 여성성이 있고 삶에 대해 진실한 생각이 있으며 목표와 힘이 있고 규율을 충실히 잘 지킨다면, 아내는 남편이 고귀하고 남자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를 항상 강화시킬 것이다. 인생에 대한 아내의 고귀한 생각들은 남편의 생각의 수준을 높여 줄 것이다. 아내의 확고하고 강한 목표의식은 남편의 모든 결단과 행동에 활력과 결의를 불어 넣을 것이다. 아내의 순수한 영혼은 남편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다. 남편의 일에 대한 아내의 따뜻한 관심과 현명한 조언은 모든 일과 싸움에서 그를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 것이다. 아내의 주의 깊은 가정 경영은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녀의 현명하고 질서 있는 행복한 살림은 항상 기쁨과 화목의 근원이 되고, 이는 고귀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내의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사랑, 여성스런 연민, 내면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그녀 스스로가 남편을 안전하게 쉬게 하고 그를 인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한다. 그녀가 아내의 고귀한 이상을 알맞게 이루어 나갈 때,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소망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성품의 문제로 돌아온다. 좋은 여자가 되어야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좋은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외에 아내의 엄숙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성품을 보석과 진주로 만드는 내면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젊음이 끝난 후에 눈이 어두워지고 불가에서 장밋빛이 시들 때에도 여전히 남편의 눈에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어떻

23) Adams, *Woman's Work and Worth*, 49.

게 복을 받고 복으로서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신다.

사랑이 처음 시작할 때 기대했던 꿈들과 결혼 이후에 너무나도 자주 들리는 깨진 환상을 비교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슬픈 일은 없다. 왜 많은 실망들이 생길까? 왜 신부의 꽃은 먼지 가운데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고 꽃을 사랑스럽고 향기롭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젊은 처녀는 미소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결혼 제단으로 향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으러 가는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녀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을 연관시킬 때까지 그녀를 입구에 멈춰 세우자. 인간의 사랑은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시련이 있고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이며 져야 할 십자가와 실망스러운 것들 그리고 염려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혼 생활이 우울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과 임재로 오늘 축 쳐진 꽃들이 내일 다시 생생하게 꽃필 것이며 사랑이 시작될 때 가졌던 꿈들은 점점 커져 위로와 위안을 주는 평화와 기쁨의 궁전이 되고 노년에 피할 피난처가 될 것이다.